

심층분석보고서

삼성선물-IT

2026.05.10

심층분석보고서: 삼성선물 IT 직무

1장: 산업(섹터) 분석

1-1. 파생상품 시장의 정의와 한국 시장의 구조적 위상

파생상품(derivatives)은 통화·채권·주식 등 기초자산의 가치를 토대로 가치가 결정되는 금융계약을 의미합니다.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된 장내파생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5조 제2항에 근거하며, 코스피200 지수선물·옵션을 필두로 코스닥150선물, 미니코스피200선물, 위클리옵션, 개별주식선물, 3·5·10년 국채선물, 미국달러·유로·엔·위안 통화선물, 금·돈육 등 상품선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갖췄습니다. 위키백과·KRX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 파생상품시장은 1996년 5월 3일 코스피200 선물 상장으로 출범했고, 2003년 부산 한국선물거래소로 이관한 뒤 2009년부터 한국거래소 통합 운영 체제로 자리 잡았으며, 아시아에서 일본과 1·2위를 다툰 정도로 주가지수파생 중심 강세를 보이는 시장입니다. 시장 규모는 글로벌 톱티어 수준이지만, 개인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양도소득세·예탁금·교육의무 등 진입장벽을 단계적으로 도입한 결과 시장 변동성과 회전율이 글로벌 평균 대비 다소 진정된 양상을 보입니다.

1-2. 선물중개업의 법적 위치와 라이선스 체계

자본시장법 체계에서 '선물업'은 투자중개업·투자매매업의 하위 인가 단위입니다. 장내파생상품에 관해 위탁매매·자기매매·중개·주선·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의미합니다. 삼성선물은 1998년 12월 재정경제부로부터 선물거래업 본허가를 획득했고, 2004년 해외선물업무 재개와 증권업 겸영 허가, 2012년 투자자문업 등록을 거쳐 현재의 종합 라이선스 포트폴리오를 구축했습니다(나무위키·위키백과 정리). 자본시장통합법(2009 시행) 이후 증권사도 전 영역 선물·옵션을 취급할 수 있게 되면서 선물전업사의 사업영역이 협소해졌고, 이는 1장 9절에서 다룬 경쟁구도 변화로 이어집니다. 라이선스 체계 자체는 안정적이지만, 동시에 진입장벽이 높아 신규 사업자가 선물전업사로 출현할 가능성이 사실상 봉쇄된 산업이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는 기존 사업자에게 안정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종합증권사 파생부서와 글로벌 IB라는 외부 경쟁자만이 의미 있는 위협 요인이 됨을 의미합니다.

1-3. KRX 파생상품시장 동향과 야간시장 자체운영 전환

2025년 6월 9일은 한국 파생상품 시장의 분기점이라 부를 만한 사건입니다. 위키백과·KB증권·미래에셋증권·next-securities 공시에 따르면, 종전 EUREX(독일파생상품거래소) 연계로 운영하던 야간 파생상품시장(코스피200선물·미니선물·옵션·위클리옵션·달러선물 5종)이 종료하고, KRX 자체 야간거래(코스피200·코스닥150선물 등 10개 종목, 18:00부터 익일 06:00까지, T+1일 정규거래와 통합 결제)로 전환했습니다. KB증권 안내문은 "기존 Eurex 연계 야간계좌가 아닌 주간 정규장 거래 시 이용하는 국내선물옵션계좌로 야간거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회원사인 삼성선물 IT 부서에 첫째 야간 시간대 시스템 가용성 확보, 둘째 T+1 결제 정합성 보장, 셋째 호가·체결·청산 시스템의 12시간 추가 운영 부담을 부과합니다. 사실상 정규장의 길이가 두 배로 늘어난 셈이므로, IT 운영 인력의 교대 체계, 모니터링 자동화, 무인 야간 운영 가능성 검증, 장애 발생 시 야간 온콜 체계 구축이 모두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1-4. 거래대금과 투자자별 비중 트렌드

심층 분석 보고서: 삼성선물-IT

KRX 정보데이터시스템(data.krx.co.kr)-통계청 e-나라지표 자료를 종합하면, 코스피200 선물 일평균 거래량은 2010년대 초반 대규모 옵션 양도세-ELW 규제 도입 이후 급감했다가 코로나19 변동성 국면(2020~2022)에 회복되었고, 2024~2025년에는 미국 대선·금리 인하·반도체 슈퍼사이클 등 매크로 변동성 확대로 다시 견조한 흐름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기관 비중이 60~70%, 개인이 20~30% 수준에서 형성하며, 야간선물의 외국인 비중이 한때 50%를 상회한 적이 있다는 점(kospiovernightfutures.com)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글로벌 IB·헤지펀드 트레이딩 수요가 한국 파생 시장의 핵심 동인입니다. 이는 곧 한국 선물전업사의 IT 시스템이 단순 국내 트래픽이 아니라 글로벌 알고리즘 트레이딩 트래픽을 처리해야 함을 의미하며, 시세 피드의 마이크로초 단위 지연(latency), FIX 프로토콜의 정합성, 글로벌 거래소와의 시간동기화(NTP) 같은 기술 이슈를 일상 과제로 끌고 옵니다.

1-5. 글로벌 파생상품 시장과의 연계

CME Group(시카고상업거래소), ICE(인터컨티넨탈익스체인지), Eurex 등은 24시간 글로벌 파생거래의 허브로 자리 잡았고, 국내 선물사들은 이들과의 직간접 연결을 통해 해외선물 중개 라이선스를 운영합니다. 삼성선물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자사는 해외선물(CME·Eurex·LME·중국거래소), 미국주식·ETF·제로데이옵션, FX마진(InterbankFX·FXCM·Gain Capital 등 복수 FDM)까지 라인업을 갖췄으며 글로벌 파생상품 연결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고 안내합니다. IT 직무 측면에서는 글로벌 거래소와의 FIX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전용회선 이중화, 시간동기화(NTP·PTP), 다중 통화 정산, 외화 증거금 환산 같은 고난도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는 역량이 요구됩니다. 특히 미국 주식·ETF·ODTE 라인업은 미국 SEC·FINRA 규제 환경의 영향을 받으므로 국내 자본시장법뿐 아니라 외국 규제까지 시스템에 반영해야 하는 복잡성이 따라옵니다.

1-6. 디지털 전환과 시스템 패러다임의 변화

삼성선물은 통합 HTS 'FuturesNet'과 모바일 'FuturesNet M'(Google Play 등재)을 운영합니다. 2022년 1월 자체 비대면 계좌개설을 도입(나무위키)했습니다. 코스콤은 카카오페이증권·토스증권 원장 구축 시 마이크로서비스 아키텍처(MSA)를 도입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5세대 원장관리 시스템 '차세대 금융 프레임워크'를 개발 중이라고 전자신문·머니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즉 업계 전반이 온프레미스에서 오픈소스·자바·MSA·클라우드 패러다임을 옮기고 있어, 삼성선물 IT도 동일한 흐름의 영향권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다만 파생상품 거래의 특성상 거래의 결정성(determinism)과 정합성이 중요하므로, 클라우드 전환이 증권사의 단순 매매 시스템보다 보수적인 속도로 진행됩니다. 즉, 핵심 체결 엔진은 온프레미스에 두고 주변부 시스템(고객지원, 데이터 분석, 마케팅, 사용자 인증)을 우선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단계적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1-7. 규제 변화와 망분리 로드맵

양도소득세(파생상품 양도세 도입·확대)와 ELW 규제(2010년대 LP 호가 제한·시장조성자 규제), 알고리즘 트레이딩 모범규준 등이 시장 규모에 영향을 미쳤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의 망분리 규제는 금융 IT의 골격을 형성합니다. 2024년 9월 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을 발표(법무법인 광장 자료)했고, 2025년 금융보안원은 연구·개발 목적 망분리 예외 적용 해설서를 발간하면서 금융사가 클라우드·AI를 도입할 운신 폭을 넓혔습니다. 이는 향후 선물사 IT의 클라우드 전환 가속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망분리 완화는 결코 보안 의무의 완화가 아니므로, 제로트러스트 아키텍처(Zero

심층 분석 보고서: 삼성선물-IT

Trust Architecture), EDR(Endpoint Detection and Response), DLP(Data Loss Prevention), SIEM 같은 차세대 보안 솔루션 도입이 동반 과제로 따라옵니다.

1-8. 가치사슬과 핵심 수익 지점

선물업 가치사슬은 첫째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수료), 둘째 자기매매(Prop), 셋째 외환·헤지 컨설팅(법인고객), 넷째 리서치, 다섯째 시스템·인프라(공동망 임차료, 마진트레이딩 스프레드)로 이뤄집니다. 삼성선물 홈페이지(samsungpop.com 수수료 안내)에 따르면 코스피200선물 약정금액 0.0030%, 해외선물 계약당 8달러 수준이 표준이며, 수수료 인하 압력이 지속됩니다. 즉 보편적 브로커리지 모델은 한계에 도달했으며 디지털·자동화로 단위 비용을 낮추는 IT 효율화가 회사의 EBIT 마진을 좌우합니다. 또한 법인고객 대상 환리스크관리·원자재헤지 컨설팅은 단가가 높고 수수료 압박이 적은 영역이므로, 삼성선물 같은 그룹 captive 고객 기반 회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1-9. 경쟁 구도 — 선물전업사와 종합증권사 파생부서

나무위키 정리에 따르면 자통법 시행 이후 증권사들이 선물업을 경영하면서 선물전업사 통합이 가속했고, 2024년 기준 국내 선물전업사는 삼성선물·NH선물·유진투자선물 3곳만 잔존합니다.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KB증권·삼성증권 등 종합증권사 파생영업본부와 경쟁하는 구도이며, 글로벌 IB(JP Morgan·Goldman Sachs·Morgan Stanley 한국법인)와 외국인 위탁 파이를 놓고 다툵니다. 종합증권사는 자기자본 규모와 IB·DCM·ECM 라인업이 우월하지만, 선물전업사는 파생 한 영역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므로 시스템 전문성·고객별 맞춤 헤지 컨설팅·24시간 운영 등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1-10. 한국 파생시장의 구조적 사이클

한국 파생시장은 '규제 강화로 시장 위축'과 '변동성 확대로 거래량 회복'이 약 5~7년 주기로 반복하는 사이클을 보입니다. 2010년대 초중반 옵션 양도세·ELW 규제로 위축한 이후, 2020~2022년 코로나 변동성으로 반등, 2023년 금리 인상기 일시 둔화, 2024~2025년 미국 대선·금리 인하 사이클로 재반등이라는 흐름이 그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이클은 회사 영업이익에 즉각 영향을 미치므로, 회사가 호황기에 IT 투자(차세대 시스템·신규 거래소 연결)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침체기에 안정 운영에 집중하는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26상 공채 시점이 거래량 회복 국면이라는 점은 곧 IT 투자가 활성화하는 국면을 의미하므로, 신규 인력에게 차세대 프로젝트 참여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큼니다.

1-11. 핀테크와 신규 채널의 침투 가능성

토스증권·카카오페이증권 같은 핀테크 사업자는 2020년대 초반 주식 위탁매매 시장을 빠르게 잠식했고, 이제 파생상품 영역으로 진입을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다만 파생상품은 양도세·교육의무·예탁금 요건 등 진입장벽이 주식 대비 훨씬 높고,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요구 수준도 매우 높아 단기간 내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핀테크가 '쉬운 UX·낮은 수수료·모바일 우선'을 앞세워 개인 투자자 시장을 침투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삼성선물 IT가 모바일 UX 고도화·API 개방·사용자 경험 개선이라는 과제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1-12. 산업 전망과 전략적 함의

종합하면 한국 선물·파생 산업은 첫째 구조적 축소 압력(규제·수수료 인하), 둘째 디지털·24/7 전환

심층 분석 보고서: 삼성선물-IT

(KRX 야간거래·MSA·클라우드), 셋째 글로벌 인터페이스 복잡화(CME·Eurex·LME·중국·미국주식)라는 세 가지 변화를 한꺼번에 겪고 있습니다. 이는 IT 직무 측면에서 '안정성·정합성·규제 적합성'이라는 보수적 가치를 사수하면서 동시에 '클라우드·MSA·자동화·신규 거래소 연결'이라는 혁신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이중 미션을 부여합니다. 즉 보수와 혁신을 동시에 끌어가는 균형 감각이 산업 전체의 핵심 키워드라 할 수 있습니다. 26상 IT 지원자는 회사가 단순한 시스템 운영자가 아니라 '변화의 변곡점에서 안정성을 사수하는 엔지니어'를 찾고 있다는 시그널을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산업이 "구조적 축소와 디지털·24/7 전환"의 국면에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평이한 선물 거래 수수료 의존이 아닌 시스템 안정성·자동화·글로벌 인터페이스가 향후 회사의 차별화 축임을 명확히 이해한 채 IT 직무에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6월 KRX 야간시장 자체운영 전환은 산업 구조를 바꾼 핵심 이벤트이므로, 이를 회사의 IT 우선순위 재편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2장: 주요 기업 비교 및 대상 회사 포지셔닝

2-1. 국내 선물전업사 3강 비교 — 삼성선물, NH선물, 유진투자선물

나무위키와 각 사 홈페이지 자료를 종합하면 국내 선물전업사는 3곳으로 좁혀졌습니다. 삼성선물은 삼성증권(51%) 자회사, NH선물은 NH투자증권 산하 농협 계열 선물사, 유진투자선물은 유진투자증권 계열입니다. 캐치 자료에 따르면 삼성선물은 평균 연봉 약 7,750만 원, NH선물 약 7,300만 원으로 삼성이 처우상 우위에 있으며, 재무 평가에서도 캐치 기준 "재무평가 상위 2%"로 분류합니다 (catch.co.kr). 삼성선물은 채널·브랜드·법인고객(외환·환리스크) 부문 수요에서 가장 강점이 크고, NH선물은 농협 채널과 농산물·통화선물에서, 유진투자선물은 개인 트레이더(SMART 챔피언 퓨처스 MTS)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2-2. 종합증권사 파생부서와의 경쟁

미래에셋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NH투자증권의 파생영업분부는 PB 채널·자기매매(Prop)·해외 IB 라이선스를 결합해 거대 자본력을 무기로 합니다. 삼성선물의 강점은 첫째 24시간 운영 콜센터(02-3707-3699), 둘째 LME·중국거래소·CME·Eurex·미국 주식·ETF·제로데이옵션을 모두 커버하는 풀 라인업, 셋째 삼성그룹 브랜드 신뢰도입니다. 약점은 자기자본 규모가 종합증권사 대비 작아 자기매매·IB 라인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종합증권사는 선물·옵션을 '여러 사업 중 하나'로 다루지만 선물전업사는 모든 자원을 파생에 투입하므로, 같은 자본 규모라도 단위당 파생 전문성·시스템 투자 강도가 더 높다는 차별점이 있습니다.

2-3. 시장점유율 데이터의 해석

KRX 정보데이터시스템(data.krx.co.kr) '투자자별 거래실적' 통계로 회원사별 점유율 추적이 가능하지만, 회원사명이 아닌 카테고리로 집계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인 위탁(글로벌 IB)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이 종합증권사·선물전업사 순입니다. 삼성선물은 법인·기관 환헤지·해외선물 시장에서 안정적 상위권을 유지한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입니다. 점유율 데이터를 단편적으로 해석하기보다, 선물전업사의 경우 '기관·외국인·법인' 위탁 비중이 압도적이고 개인 비중이 적다는 산업 구조 자체를

심층 분석 보고서: 삼성선물-IT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IT 시스템 설계에도 영향을 미쳐, 대량 알고리즘 주문(API·FIX)을 처리할 수 있는 고가용 백엔드와 일반 개인 투자자용 모바일 UX의 비중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좌우합니다.

2-4. 제품·서비스 포트폴리오 비교

삼성선물 공식 홈페이지(ssfutures.com) 사업영역에 따르면 첫째 위탁매매(국내선물·해외선물·FX마진·미국주식·ETF·제로데이옵션), 둘째 법인고객(AUTO환전, 환리스크관리센터, 원자재센터), 셋째 리서치(Daily/Monthly 시황, Market Unboxing, 리서치 이슈픽), 넷째 모의거래를 제공합니다. NH선물은 야간선물·국내·해외 위주, 유진투자선물은 SMART 챔피언 퓨처스 모바일 앱 중심의 개인 트레이더 타깃입니다. 라인업 폭에서는 삼성선물이 가장 넓고, 그중에서도 미국 주식·ETF·ODTE는 2024년 4월 29일에 신규 오픈한 라인업이라 가장 '젊은' 사업입니다. IT 관점에서는 신규 라인업이 최신 아키텍처(클라우드, MSA, API 기반)를 우선 적용하는 시범 사업장 성격을 띠 가능성 높습니다.

2-5. 비즈니스 모델 — 수수료 의존도 비교

선물전업사는 종합증권사 대비 수수료 수익 의존도가 80~90%로 매우 높고, 자기매매·IB 비중은 제한적입니다. 삼성선물의 강점은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그룹 내 거대 보험사의 환헤지·금리헤지·상품헤지 수요를 안정 수익원으로 확보한다는 점입니다. 삼성생명·삼성화재의 운용자산은 합산 약 350조 원 이상으로 추정하며, 이들의 외화자산 환헤지 수요는 삼성선물의 외환·통화선물·FX 부문에 구조적 백스톱(captive demand)을 부여합니다. 이런 구조는 시장 변동성과 무관하게 일정 수준의 거래량을 보장하므로 IT 시스템에 '예측 가능한 트래픽 베이스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즉 IT 부서가 정밀한 캐파시티 플래닝(capacity planning)을 할 수 있는 안정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2-6. 삼성선물의 포지셔닝 — 삼성그룹 금융계열사이자 플라인업 파생 전문가

삼성선물은 첫째 삼성그룹 브랜드, 둘째 삼성생명·삼성화재 captive 헤지 수요, 셋째 삼성자산운용 ETF·펀드와의 시너지, 넷째 글로벌 거래소 풀 커버리지(CME·Eurex·LME·중국·미국주식)라는 네 가지 해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IB 대비 자기매매·DCM 역량은 niche에 머물러 있어 '전문화된 mid-tier specialist' 포지션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포지셔닝은 IT 측면에서는 '대규모 신규 투자보다 정밀한 시스템 고도화'에 무게가 실린다는 의미이며, 결과적으로 '세련된 운영, 작은 단위의 고도화 프로젝트, 그룹 captive 시스템과의 정밀한 인터페이스'가 일상 업무의 중심이 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2-7. SWOT 분석 — Strengths

강점으로는 삼성 브랜드, 그룹 captive 헤지 수요, 24시간 콜센터·플라인업, 안정 재무(캐치 평가 상위 2%)를 꼽습니다. 또한 30년 이상 축적한 파생상품 도메인 노하우와 KRX·코스콤·삼성SDS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도 무형의 자산입니다. 인력 측면에서도 행정고시·금융위 출신 김인 신임 대표가 합류하면서 정책·규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큼니다. IT 부문은 코스콤 차세대 프레임워크의 영향권에 있으므로, 단독 시스템 구축의 부담을 덜고 표준화된 인프라 위에서 회사 특화 기능을 구축하는 효율적 방식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2-8. SWOT 분석 — Weaknesses

약점으로는 자기자본 규모 제약, 자기매매·IB 한계, 종합증권사 대비 영업망 협소를 꼽습니다. 단일 본

심층 분석 보고서: 삼성선물-IT

사(서초사옥 20층) 구조라 지역·해외 지점 네트워크가 사실상 없어, 해외 시장 진출 시 외부 브로커와의 제휴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회사 규모가 mid-size이므로 IT 인력 풀도 종합증권사 대비 작아, 1인당 다양한 영역을 담당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는 신입에게는 '다양한 경험을 빠르게 쌓을 수 있는 환경'이라는 양면성으로 작용합니다.

2-9. SWOT 분석 — Opportunities

기회 요인으로는 KRX 야간시장 자체운영 전환에 따른 신규 거래시간대 수요, 미국 주식·ETF·제로데이 옵션(ODTE) 신규 라인업(2024.4.29 오픈), AI·클라우드 전환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ODTE는 글로벌 헤지펀드와 알고리즘 트레이더의 폭발적 관심을 받는 상품이므로, 한국에서도 향후 거래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IT 시스템 부하·정합성 검증·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새로운 도전을 안깁니다. 망분리 규제 완화와 금융보안원의 클라우드 가이드라인 확장은 차세대 시스템 도입 운신 폭을 넓혀주는 우호적 변수입니다.

2-10. SWOT 분석 — Threats

위협 요인으로는 종합증권사 파생부서 침투, 수수료 인하 경쟁, 핀테크(토스증권·카카오페이증권)의 파생 진입 가능성, 정부의 선물전업사 통합 압력을 꼽습니다. 특히 정부가 자본시장 효율성을 명분으로 선물전업사 인가 통합을 추진할 경우 산업 자체의 존립 방식이 바뀔 수 있고, 이는 인사·조직·시스템 측면에서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장기 리스크입니다. 또한 글로벌 IB의 한국 시장 영향력 확대는 외국인 위탁 시장의 상위 자리를 더 강하게 잠식할 수 있는 압력입니다.

2-11. 최근 1~6개월 핵심 이슈 — 김인 신임 대표 선임

아시아에이·이비엔·더퍼블릭·문화뉴스 보도에 따르면, 2025년 12월 8일 임시주총·이사회에서 김인 부사장(1971년생, 행정고시 37회, 서울대 경제학과, EBRD 이코노미스트,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서기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 삼성화재 기획팀장 상무, 삼성증권 기획실장 부사장 출신)이 신임 대표이사 자리에 올랐습니다. 정책·규제·기획 라인의 정통 금융 엘리트가 사령탑에 오른 것으로, 향후 규제·시스템 정합성·그룹 시너지 강화에 무게가 실릴 전망입니다. 영업 외형 확대보다 '내부 시스템 정밀도와 그룹 캡티브 시너지'를 우선하는 경영 스타일이 예상되며, 이는 IT 부서에 '안정성·정합성·내부통제' 우선순위를 한층 높이는 영향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종합증권사 파생부서가 아닌 선물전업사 진로를 택하는 합리적 이유로 첫째 선물전업사 3강 과점 구조의 안정성, 둘째 삼성그룹 captive 수요와 풀라인업, 셋째 김인 신임 대표체제의 규제·정합성 강화 방향성을 IT 시스템 신뢰성과 연결하는 서사를 마련해두는 것이 유효합니다.

3장: 대상 회사 심층 분석

3-1. 회사 연혁의 큰 그림

나무위키·위키백과 정리에 따르면, 삼성선물은 1992년 10월 국제나일론이 설립한 '국제선물'에서 출발해 1996년 삼성그룹이 인수, 1997년 삼성선물로 사명 변경, 1998년 1월 태평로에서 여의도 본사 이전과 12월 선물거래업 본허가, 1999년 한국선물거래소 출범과 함께 국내선물 취급 개시, 2004년 해

심층 분석 보고서: 삼성선물-IT

외선물 재개·증권업 겸영, 2006년 업계 최초 LME 온라인 거래(자체적 연결, 자체 인프라), 2009년 FX마진 도입, 2012년 투자자문업 등록, 2022년 1월 자체 비대면 계좌개설, 2024년 4월 29일 미국 주식·ETF·제로데이옵션(ODTE) 매매서비스 오픈으로 이어지는 3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사는 현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 삼성전자 서초사옥 20층에 자리합니다(공식 홈페이지). 30년이라는 시간 자체가 회사의 자산이며, 이는 시스템·운영·고객 관리·규제 대응 노하우가 두텁게 쌓였음을 의미합니다.

3-2. 사업 구조와 부문별 매출 동력

삼성선물 사업영역(공식 홈페이지)은 첫째 국내선물(코스피200·미니·위클리옵션·코스닥150·국채·통화·상품), 둘째 해외선물(CME·Eurex·LME·중국거래소), 셋째 FX마진(복수 FDM 체제), 넷째 미국주식·ETF·제로데이옵션(2024.4 신규), 다섯째 법인고객(AUTO환전, 환리스크관리센터, 원자재센터)로 구성합니다. 매출 구조는 위탁수수료가 다수, 그 다음으로 자기매매(증거금·예치금 운용 수익), FX 스프레드, IB 자문 순으로 추정합니다. 부문별로 IT 시스템 의존도가 다른데, 위탁매매와 FX는 거래 빈도가 매우 높아 시스템 안정성·체결 속도가 핵심 KPI이고, 법인고객 컨설팅은 데이터 분석·리포팅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부문마다 시스템 요구가 달라 IT 부서 내에서도 영역별 전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3-3. 주요 재무 지표와 평가

삼성선물은 비상장 금융투자회사로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DART에 공시합니다. 채용정보 플랫폼 캐치는 삼성선물을 “재무평가 상위 2%”로 평가하며(catch.co.kr 2026년 기업정보), 평균 연봉을 약 7,750만 원으로 집계(jasoseol.com)합니다. 블라인드 게시글에 따르면 신입 계약 연봉은 약 5,100만 원, PI 510만 원 수준으로 보고합니다. 자기자본 규모는 수천억 원 단위로 파악하며, 삼성증권 51% 외 잔여 지분은 삼성생명·삼성화재 등 그룹 계열사가 보유하는 구조입니다(위키백과). 본 리포트 작성 시점에 DART 자료 접근이 제한되어 정확한 2024년 결산 매출·영업이익·당기순이익 수치는 회사 IR 페이지(ssfutures.com/biz/company/finance) 또는 DART(dart.fss.or.kr)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상장사이지만 정기 공시를 모두 이행하므로 외부 신뢰도가 상장사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3-4. CEO·경영진 — 김인 신임 대표 체제

김인 신임 대표이사는 2025년 12월 8일 자리에 오른 1971년생 정책·금융 라인 전문가입니다.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EBRD 이코노미스트,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 서기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을 역임한 후 2014년 삼성화재 기획팀장(상무)으로 삼성금융네트웍스에 합류, 삼성증권 기획실장(부사장)을 거쳐 삼성선물 대표에 취임했습니다(아시아에이·이비엔·더퍼블릭). 이러한 이력은 회사의 우선순위가 영업 확대보다 규제 대응·내부통제·그룹 시너지·디지털 전환으로 무게중심을 옮길 가능성이 큼을 시사합니다. 정책·규제 출신 CEO는 통상 컴플라이언스 강화, 내부통제·정합성 시스템 고도화, 그룹 시너지 확대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어, IT 부서가 ‘안정성·정합성·규제 적합성’을 핵심 가치로 운영하게 만드는 환경 변수를 형성합니다.

3-5. 차별화 포인트 — 브랜드와 시스템

삼성선물의 차별화 포인트는 첫째 삼성그룹 브랜드(국내 1위 그룹 신뢰도, 그룹 내 captive 헤지 수

심층 분석 보고서: 삼성선물-IT

요), 둘째 시스템 인프라(FuturesNet HTS, FuturesNet M MTS, 24시간 고객센터 02-3707-3699), 셋째 글로벌 라인업(CME·Eurex·LME·중국거래소·FX복수FDM·미국주식 ODTE), 넷째 리서치 역량(Daily/Monthly 시황, Market Unboxing, 리서치 이슈픽 정기 발간)으로 정리합니다. 시스템 인프라는 그 자체로 경쟁우위 요인이며, 특히 24시간 고객센터는 국내 선물전업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운영 체계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이러한 차별화 포인트는 IT 부서의 일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시스템 다운타임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 운영 문화, 글로벌 거래소 인터페이스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검증 절차, 리서치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정확성을 사수하는 검증 자동화 등이 그 사례입니다.

3-6. 리스크 요인 — 시장·규제·지배구조

리스크 요인은 첫째 거래대금 변동성(시장 변동성에 영업이익이 크게 좌우), 둘째 수수료 인하 경쟁(종합증권사·핀테크 사업자의 압박), 셋째 모회사 삼성증권의 그룹 지배구조 이슈(삼성증권·삼성생명 IPO/지배구조 재편 시 자회사 영향), 넷째 규제(양도세, 알고리즘 트레이딩 규제, 망분리 등)입니다. 이 가운데 지배구조 이슈는 외부에서 통제 불가능한 변수이고, 모회사 삼성증권의 전략 방향이 자회사인 삼성선물의 인사·시스템 투자·그룹 시너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그룹 차원의 안정 운영 기조가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으므로 단기 리스크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3-7. 최근 보도자료와 공시 흐름

최근 1년 핵심 이벤트를 정리하면 첫째 2024년 4월 29일 미국주식·ETF·제로데이옵션 매매서비스 오픈, 둘째 2025년 5월 16일 준법감시인 검토필 25-066호 장내파생상품 설명서 갱신, 셋째 2025년 6월 9일 KRX 자체 야간거래 시행에 따른 안내(EUREX 연계 종료), 넷째 2025년 12월 8일 김인 신임 대표이사 선임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벤트는 각각 '신상품 라인업 확장 → 규제·정합성 강화 → 24/7 운영 전환 → 정책·규제 라인 CEO 부임'이라는 흐름으로 연결됩니다. IT 부서는 이 네 이벤트 모두에서 일정 부분 이상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향후 IT 인력 수급에서도 '정합성·안정성·규제 대응' 역량을 갖춘 인재에 가중치가 부여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3-8. IT 인프라 동향 — 코스콤·삼성SDS와의 관계

삼성선물은 자체 HTS·MTS인 FuturesNet 시리즈를 운영하며, 코스콤의 공동 IT 인프라(증권망, IDC, 표준 금융 프레임워크)를 일부 활용합니다. 머니투데이·전자신문 보도에 따르면 코스콤은 2023~2024년부터 카카오페이증권·토스증권 원장 구축 시 도입한 MSA·자바·오픈소스 기반 '차세대 금융 프레임워크'를 5세대 원장관리 시스템으로 발전시키고 있어, 선물전업사 차세대 시스템 역시 동일한 방향(클라우드 네이티브, MSA, 자동확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그룹의 IT 자회사 삼성SDS는 30년간 500여 글로벌 사업장 IT 인프라 구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데이터센터·네트워크·클라우드·보안을 패키지로 공급(samsungsds.com)하며, 삼성선물도 그룹 보안 가이드라인과 SDS 인프라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파트너 생태계는 삼성선물 IT 부서에게 '외부 협력사 매니지먼트 역량'이 핵심 소프트스킬임을 의미합니다.

3-9. 주력 라인업 'ODTE'의 IT적 함의

2024년 4월 29일 신규 오픈한 미국주식·ETF·제로데이옵션(ODTE) 라인업은 IT 시스템 측면에서 가장 도전적인 상품군입니다. ODTE는 만기 당일 옵션으로, 만기 직전 시간 가치 붕괴(theta decay)와

심층 분석 보고서: 삼성선물-IT

결합한 폭발적 가격 변동을 보이며, 미국 시장 시간대(한국 야간)에 거래가 집중됩니다. 이는 첫째 야간 시간대 시스템 안정성, 둘째 분초 단위 시세·체결 정합성, 셋째 한국 투자자에게 미국 시장 데이터를 정확히 전달하는 다층 인터페이스, 넷째 미국 SEC·FINRA·OCC 규제와 한국 자본시장법의 동시 준수라는 복합 과제를 던집니다. IT 부서가 ODTE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글로벌 거래소 인터페이스 노하우, 시간동기화 기술, 다중 통화 정산 시스템, 실시간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이 통합으로 동작해야 합니다.

3-10. 리서치·데이터 분석 인프라

삼성선물 리서치 부문은 Daily/Monthly 시황, Market Unboxing, 리서치 이슈픽 정기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이를 IT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시장 데이터(KRX·CME·Eurex·LME·중국거래소·미국주식)를 일관된 형식으로 수집·저장·가공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파이프라인은 첫째 실시간 시세 피드 수신(FIX·바이너리 프로토콜), 둘째 메시지 큐를 통한 분기·병렬 처리, 셋째 시계열 데이터베이스(TSDB) 적재, 넷째 BI·리포팅 도구 연결로 이뤄집니다. 리서치팀의 분석 품질은 곧 IT 부서가 제공하는 데이터 품질에 좌우되므로, 데이터 거버넌스·정합성 검증·결측치 처리 자동화는 IT가 책임지는 핵심 영역입니다.

3-11. 윤리경영과 ESG의 IT 함의

공식 홈페이지(ssfutures.com/biz/company/ethics) 윤리경영 섹션은 핵심가치·경영원칙·윤리강령·부정제보를 네 기둥으로 구성하며, 삼성그룹 윤리경영 DNA를 회사 차원에서 운영합니다. ESG 측면에서 IT 부서가 기여할 영역은 첫째 부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이상거래 감지, 시세조종 의심 패턴 추적), 둘째 정보보호와 개인정보 처리, 셋째 그린IT(서버 가상화, 전력 효율 데이터센터), 넷째 부정제보·내부고발 시스템 운영입니다. 윤리경영을 단순 구호로 끝내지 않고 시스템화하는 것은 정책·규제 출신 김인 신임 대표 체제에서 한층 강조될 영역으로 예상합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김인 신임 대표 체제 출범 직후의 첫 공채라는 맥락은 매우 중요합니다. IT 직무 지원자라면 '안정성·정합성·규제 적합성'이라는 키워드를 자기 역량과 연결하는 사고를 갖추는 것이 유효합니다.

4장: 인재상/조직문화

4-1. 삼성선물 공식 핵심가치와 경영원칙

공식 홈페이지(ssfutures.com/biz/company/ethics) 윤리경영 섹션은 핵심가치·경영원칙·윤리강령·부정제보 네 기둥으로 구성하며, "삼성이 가장 소중하게 지켜온 가치이자 신념", "삼성의 위대한 내일을 위한 성공DNA"를 강조합니다. 채용 페이지는 "업무 성과와 역량에 따른 승격·승진", "연공서열이 아닌 업무 성과와 역량에 따라 승격·승진을 결정해 활력이 넘치는 조직 문화를 만들고 임직원의 도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고 명시합니다. 평가 체계는 '목표 수립, 중간 점검, 결과 면담'의 3단계 면담 시스템과 직무별 역량 평가 모델로 구성합니다. 이는 신입 입사자 입장에서 첫째 명확한 목표 설정 과정, 둘째 정기적 피드백 사이클, 셋째 직무별 차별화한 평가 모델을 경험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4-2. 삼성그룹 인재상의 변용

심층 분석 보고서: 삼성선물-IT

삼성그룹 공식 인재상은 '인간미·도덕성·예의·예절·창의·도전·전문성'을 골자로 하며, 삼성신경영(1993)에서 시작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의 변화관리 DNA가 흐릅니다. 삼성선물은 이 그룹 DNA를 첫째 고객 만족 우선(공식 홈페이지 "고객 만족에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투자 파트너"), 둘째 글로벌 파생 전문성(CEO 메시지 '글로벌 파생상품 전문 금융회사로 나아갈 것'), 셋째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으로 변용해 사용합니다. 이러한 변용은 IT 부서에서 '고객 만족과 시스템 안정성을 동일선상에서 다루는 문화', '글로벌 파생 도메인 지식을 우대하는 채용 기준', '기존 운영 방식에 안주하지 않는 자동화·효율화 시도' 같은 일상 행동 패턴으로 나타납니다.

4-3. 조직 문화의 정량 데이터 기반 추론

평균 연봉 약 7,750만 원(jasoseol.com 추정), 신입 계약 5,100만 원에 PI 510만 원 수준(블라인드)으로 보고합니다. 임직원 수는 100~200명 안팎의 mid-size 조직으로 추정합니다(saramin.co.kr 기업정보). 본사 단일 지점(서초사옥 20층)으로 부서 간 인터랙션이 잦은 compact 구조이고, 24시간 고객센터·해외선물 야간 운영 등으로 IT·운영 부서는 교대·온콜 부담이 존재할 가능성이 큼니다. mid-size 조직이라는 특성은 양면성을 지니는데, 한편으로는 신입에게 다양한 영역을 경험할 기회를 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인이 책임지는 영역이 넓어 초기 학습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4-4. 본사 단일 지점이 만드는 협업 문화

본사 단일 지점 구조는 부서 간 거리가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트레이더·딜러·리스크관리·컴플라이언스·IT가 같은 층(또는 인접 층)에서 일하므로, 시스템 장애나 신규 상품 도입 같은 이슈가 발생할 때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뤄집니다. 이런 환경은 IT 부서에 '즉각적이고 정확한 응답' 기대치를 만들어내며, 사용자(트레이더·딜러)의 요구가 분초 단위로 들어오는 경우가 잦습니다. 따라서 신입 IT 인력에게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명료함'과 '긴급 상황에서의 침착함'이 매우 중요한 자질로 작용합니다.

4-5. 금융 IT 도메인이 선호하는 인재 특성 — 지식과 기술의 결합

금융권 IT 도메인은 첫째 금융 도메인 지식과 기술 역량의 결합을 우선합니다. 자본시장 구조·파생상품 메커니즘·KRX 시스템(EXTURE+, FIX 프로토콜)을 이해하는 개발자가 우대받습니다. 둘째 안정성·정합성·정확성 우선 사고가 필요합니다. 1초 장애가 수십억 원 손실로 이어지는 환경이므로 SLA 99.9% 이상이 기본입니다. 셋째 24/7 시장 대응 마인드입니다. KRX 야간시장(18:00부터 익일 06:00까지) 자체운영 전환과 해외선물(CME·Eurex) 야간 운영이 필수입니다.

4-6. 금융 IT 도메인이 선호하는 인재 특성 — 컴플라이언스와 협업

넷째 컴플라이언스·정보보안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망분리, 금융보안원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법 준수가 필수입니다. 다섯째 다부서 협업 역량입니다. 트레이더·운용역·리스크·컴플라이언스·고객지원과의 잦은 인터페이스가 일상입니다. 여섯째 장기 프로젝트 인내력입니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은 1.5~3년 단위의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일곱째 신기술 학습 능력입니다. 코스콤이 5세대 원장 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MSA로 전환하는 만큼 자바·MSA·쿠버네티스·DevOps 학습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역량은 한 가지를 깊이 파는 '스페셜리스트형'보다 여러 영역을 두루 다루는 'T자형 인재'가 환영받는 배경이 됩니다.

4-7. 삼성그룹 IT 인재의 특수성 — SDS와 그룹 보안

심층 분석 보고서: 삼성선물-IT

삼성그룹 IT 인재의 특수성은 첫째 삼성SDS와의 관계입니다. 삼성선물 IT 인프라는 SDS의 데이터센터·네트워크·클라우드·보안 솔루션 영향권에 있습니다. SDS의 Brightics, Cello, Maxigent 등 솔루션 친속도는 plus입니다. 둘째 그룹 보안 가이드 우선입니다. 삼성그룹 보안가이드(S-Security)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유지가 모든 IT 의사결정의 상수입니다. 셋째 사용자보호 우선입니다. 삼성그룹 금융계열사 공통의 '소비자보호' 우선주의(공식 홈페이지 '소비자보호' 섹션 별도 운영)가 작동합니다. 넷째 성과 기반 평가입니다. 연공보다 직무별 역량 평가 모델이 우선합니다. 그룹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는 신입 IT 인력에게 처음에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글로벌 보안 표준에 부합하는 운영 노하우를 익히는 좋은 기회로 작용합니다.

4-8. 평가받는 소프트스킬 — 침착성과 문서화

평가받는 소프트스킬과 업무 태도는 첫째 장애 대응 침착성과 문서화 습관입니다. 장애 시 RCA(Root Cause Analysis) 보고서 작성이 사실상 표준입니다. 둘째 컴플라이언스 감수성입니다. '이 작업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위반은 아닌가?'를 자체 검토할 수 있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셋째 협업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트레이더·딜러는 분초 단위로 의사결정하므로 IT는 즉각적이고 정확한 응답이 필수입니다. 넷째 글로벌 감각입니다. CME·Eurex·LME·중국거래소 인터페이스 운영 시 영문 매뉴얼·외국인 카운터파트 응대 역량이 필요합니다. 문서화 습관은 특히 중요한데, 사람이 자주 바뀌는 IT 환경에서 시스템 노하우를 조직에 남기는 유일한 방법이 문서화이기 때문입니다.

4-9. 평가받는 소프트스킬 — 글로벌 감각과 학습 태도

글로벌 감각은 영어 능력 그 자체보다 '외국 거래소·외국 규제·외국 카운터파트와 일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시간대가 다른 글로벌 카운터파트와 일하다 보면 한국 업무시간이 끝난 뒤 응답해야 하는 상황도 잦고, 영문 기술 문서를 빠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습 태도는 신기술이 빠르게 등장하는 IT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새로운 프로토콜·새로운 거래소 시스템·새로운 보안 위협이 끊임없이 등장하므로, 입사 후에도 평생 학습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환영받습니다.

4-10. 정통 vs 혁신, 두 가지 결의 균형

삼성선물 같은 금융사는 '정통'과 '혁신' 두 가지 결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정통의 결은 30년 업력이 만들어낸 운영 노하우, 그룹 보안 가이드라인, 정합성 우선 사고로 대표합니다. 혁신의 결은 클라우드·MSA·AI·자동화 같은 신기술 도입으로 대표합니다. 신입 인재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조직에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정통만 강조하면 시대에 뒤처지고, 혁신만 강조하면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두 결을 함께 끌고 가는 균형 감각이 회사가 가장 원하는 자질이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삼성선물 IT 직무는 '신기술을 도입하는 혁신가'보다 '안정성·정합성·규제를 사수하는 신뢰의 엔지니어' 쪽 무게가 더 큽니다. 자기 역량을 어필할 때, 신기술 키워드 나열보다 '장애를 막아낸 경험, 정합성을 끝까지 검증한 경험, 규제를 이해하고 시스템을 설계한 경험'을 구체적 수치(가용성 %, MTTR 분, 장애 0건 등)로 풀어내는 사고가 효과적입니다.

5장: 직무 분석

5-1. 삼성선물 IT 직무의 핵심 역할 영역

삼성선물 IT 직무(직전 24~25년 공고 기준 IT 운영 직군 가이드)는 첫째 시스템 개발(주문 OMS, 체결, 계좌, 정산, 리스크, 증거금, 청산 시스템), 둘째 인프라(서버, 네트워크, DB Oracle·MS-SQL, 메시징 MQ·Kafka, 전용회선, 시간동기화 NTP), 셋째 정보보안(망분리, 침입차단·탐지 IDS·IPS, 접근제어, 로그·SIEM, 보안관제), 넷째 IT 기획(차세대 시스템 PMO, 신상품·신규 거래소 연결 기획, 컴플라이언스 IT), 다섯째 데이터·분석(거래·고객·리스크 데이터 분석, BI, 보고용 데이터마트), 여섯째 헬프데스크·VOC(사내 사용자인 트레이더·딜러·관리부서 지원)로 구성합니다. 신입 인력은 보통 운영 영역에서 시작하여 도메인 지식을 쌓은 뒤 개발·기획 영역으로 확장하는 경로를 밟습니다.

5-2. 일 단위 업무 워크플로우

일 단위 업무는 다음 흐름을 보입니다. 07:30~08:30에 장 시작 전 시스템 점검(주문·체결·시세·증거금·정산 batch 정상성 확인)을 수행합니다. 08:45~15:45에는 주간 정규장 모니터링과 사고 대응을 진행합니다. 15:45~17:30에는 장 마감 후 정산·청산 batch를 실행하고 한국예탁결제원·KRX·금감원 보고 데이터를 산출합니다.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는 KRX 자체 야간거래 모니터링(2025.6.9 신설)과 해외선물(CME·Eurex·LME) 운영을 수행합니다. 야간 시간대는 보통 자동화 모니터링과 온콜 인력 1~2명이 담당하며, 중대 장애 발생 시 추가 인력이 비상 소집되는 구조입니다.

5-3. 월·분기·연 단위 업무 워크플로우

월 단위로는 시스템 패치·업그레이드, 월간 정합성 점검, KRX·금감원·예탁원 정기 보고를 수행합니다. 분기 단위로는 보안 취약점 점검, BCP·DR 모의훈련, 임원 보고를 진행합니다. 연 단위로는 차세대 시스템 단계별 구축,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갱신, 외부감사 대응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일·월·분기·연 단위로 다층 사이클이 돌아가므로, 신입 인력은 입사 첫 1년 동안 일 단위 운영을 익히고 2년 차부터 월·분기 단위 업무로 영역을 확장하는 패턴을 일반적으로 따릅니다.

5-4. 내부 이해관계자 맵

내부 이해관계자는 영업·트레이더·리스크관리·컴플라이언스·회계·감사·경영지원 부서입니다. 각 부서가 IT에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고 우선순위도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영업·트레이더는 '체결 속도와 신상품 출시 속도'를 우선시하고, 컴플라이언스·감사는 '정합성과 규제 준수'를 우선시합니다. IT 부서는 이 충돌을 '시스템 설계의 균형'으로 해소해야 하며, 따라서 어느 한 부서의 일방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충돌을 조정하는 협상 역량도 IT 직무의 일부로 이해해야 합니다.

5-5. 외부 이해관계자 맵

외부 이해관계자는 첫째 규제·인프라 측면(KRX 한국거래소, 금융위·금감원,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둘째 그룹 측면(삼성SDS, 삼성생명·삼성화재 헤지 고객, 삼성증권 모회사·연계계좌), 셋째 시장 측면(CME Group, ICE, Eurex, LME, 중국거래소), 넷째 벤더 측면(SI 업체, 보안 벤더 망분리·DLP·EDR, DBMS 벤더, HW 벤더)으로 나뉩니다. 외부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다는 사실은 IT 부서가 '사내 시스템만 잘 알면 되는 폐쇄적 영역'이 아니라 '외부 생태계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인터페이스 영역'임을 의미합니다.

5-6. 필요 역량 — 기술 지식

심층 분석 보고서: 삼성선물-IT

기술 지식 영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언어로는 Java, C·C++, Python, JavaScript(웹·MTS 프론트)를 주로 사용합니다. DB로는 Oracle, MS-SQL, Tiberio, NoSQL(시세·로그)을 운영합니다. OS·미들웨어로는 Linux(RHEL), Windows Server, Tomcat·JBoss·WebLogic을 다룹니다. 메시징·데이터로는 TIBCO MQ, IBM MQ, Apache Kafka(차세대)를 운영합니다. 네트워크로는 TCP·IP, FIX 프로토콜, KRX EXTURE+ 인터페이스, 전용회선·라우팅을 다룹니다. 클라우드·DevOps(차세대) 영역에서는 쿠버네티스, MSA, CI·CD, IaC(Terraform)를 익혀야 합니다. 정보보안 영역에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ISMS-P, 망분리, IDS·IPS, DLP, EDR, SIEM 지식을 갖춰야 합니다.

5-7. 필요 역량 — 도메인 지식과 소프트스킬

도메인 지식 영역에서는 첫째 자본시장 구조(코스피200·코스닥150·국채·통화·상품선물, 옵션 그리스 Greeks), 둘째 시장 인프라(KRX EXTURE+, ECN·ATS NXT, 코스콤 STP-HUB, FIX 4.4·5.0), 셋째 거래·정산 흐름(주문, 체결, 포지션, 증거금, 일일정산, 예약결제), 넷째 회계(K-IFRS, 파생상품 회계처리 헤지회계 포함)를 갖춰야 합니다. 소프트 스킬은 협업·문서화·장애 대응 침착성·컴플라이언스 감수성·고객 응대(VOC)·글로벌 영어로 정리합니다. 도메인 지식이 기술 지식만큼 중요한 영역이며, 도메인 지식이 부족한 IT 인력은 트레이더·운용역과의 대화에서 의사소통 단절을 겪기 쉽습니다.

5-8. 성과 지표(KPI)와 평가 포인트

성과 지표는 시스템 가용성 SLA 99.9%(연간 8.76시간 이내 다운타임), 장애 건수와 평균복구시간(MTTR) 분 단위 관리, 프로젝트 적기 완료율(On-time delivery), 보안 사고 0건 유지(전자금융감독규정 제40조 사고보고 의무), 사용자 만족도(내부 트레이더·딜러 NPS), 비용 효율(TCO 축소, 외주 의존도 관리)으로 정리합니다. 이 지표들은 모두 '방어형 KPI'입니다. 즉 '무엇을 더 했느냐'보다 '무엇을 막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는 금융 IT 직무 본연의 성격이며, 매출 부서의 '공격형 KPI'와는 결이 다릅니다.

5-9. 대표 업무 시나리오 — 시나리오 1과 2

시나리오 1은 야간 해외선물 시스템 장애 대응입니다. 02:30 CME 시세 피드 지연을 감지하면 알람이 울리고 1차 대응자(온콜)가 인지합니다. CME 측 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백업 회선을 전환한 뒤 03:00 정상화하고 다음날 RCA 보고서를 작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합니다. 시나리오 2는 KRX 야간시장 자체운영 전환 대응(2025.6 실제 이벤트)입니다. EUREX 연계 종료 이후 KRX 자체 야간거래로 전환하면서 야간거래 신청 모듈을 신설하고, T+1 결제 적합성을 검증하며, 가격제한폭 $\pm 5\sim 8\%$ 적용 로직을 변경하고, 호가창·주문화면 UI를 수정하고, 사용자 매뉴얼·FAQ를 갱신해야 합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 '즉각적 대응 능력'과 '체계적 문서화 능력'을 함께 요구합니다.

5-10. 대표 업무 시나리오 — 시나리오 3과 4

시나리오 3은 신상품 IT 대응으로 미국 주식·ETF·제로데이옵션(ODTE) 도입(2024.4)입니다. 신상품을 기획한 뒤 외부 거래소·브로커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주문·체결·정산 시스템을 변경하며, 위험고지 모듈·약관을 추가하고, 모의시험·QA를 거쳐 준법감시인 검토를 받고 오픈합니다. 시나리오 4는 정보보안 사고 가정 대응입니다. DDoS 트래픽을 감지하면 IPS 차단 정책을 적용하고, 침해사고 대응팀(CERT)을 소집하며, 금감원·금융보안원에 보고하고 포렌식을 수행한 뒤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두 시나리오는 각각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역량'과 '위기 대응 매니지먼트 역량'을 시험합니다. 둘

다 IT 직무 시니어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익혀야 하는 영역입니다.

5-11. 캐리어 패스의 풍경

캐리어 패스는 다음 흐름을 갖습니다. 주니어(1~5년)는 시스템 개발자·운영자로서 단위업무 개발과 장애 대응을 담당합니다. 시니어(5~12년)는 팀 리더, 차세대 PM·PMO, 도메인 전문가로 성장합니다. 관리자(12~20년)는 IT 기획팀장, 정보보안 책임자(CISO), IT 총괄 부서장으로 자리합니다. 임원 단계에서는 CIO·CDO 또는 경영기획 임원으로 순환 보직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기술 트랙'과 '관리 트랙'이 모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깊이 파고드는 인재를 도메인 전문가·아키텍트로, 사람과 프로젝트를 이끄는 인재를 PM·관리자로 성장합니다.

5-12. 26상 IT 직무 지원자가 우선 챙겨야 할 키워드

체득해 둘 도메인 지식은 KRX 야간시장 자체운영(2025.6), KRX EXTURE+, FIX 프로토콜 4.4, 코스콤 5세대 원장 차세대 프레임워크입니다(이 항목 기준 '체득' 대신 '익혀 둘 도메인 지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익혀 둘 도메인 지식). 즉시 어필 가능한 기술 키워드는 Java-Spring, Linux, Oracle, MSA, 클라우드, 정보보안(ISMS-P)입니다. 삼성선물 특화 포인트는 FuturesNet HTS·MTS, 24시간 고객센터, 미국 주식·ETF·ODTE 라인업입니다. 컴플라이언스 키워드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 15조 망분리, 금융보안원 가이드라인, 자본시장법입니다.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머릿속에 정리해두면 회사에 대한 이해 수준이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지원 전략 관점의 시사점: 삼성선물 IT 직무 도전의 의미는 첫째 선물·파생 도메인의 안정성·정합성 가치를 신뢰하고, 둘째 삼성그룹 captive 헤지 수요가 만들어내는 안정 트래픽 환경에서, 셋째 2025년 KRX 야간시장 자체운영 전환과 미국 ODTE 신규 라인업처럼 변화의 변곡점에 있는 시스템을 설계·운영하는 경험을 쌓는 데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를 정합성 있게 연결하는 사고가 회사 이해의 깊이를 만들어냅니다.

참고 레퍼런스 (References)

- 삼성선물 공식 홈페이지 회사소개 —
https://www.ssfutures.com/ssf/company/main/CPI_01001.jsp
- 삼성선물 채용공고 페이지(공식) —
https://www.ssfutures.com/ssf/company/hr/CPI_05101.cmd
- 삼성선물 미국 주식·ETF·제로데이옵션 매매서비스 오픈 공지(2024.4) —
https://www.ssfutures.com/ssf/customer/notice/CUS_01102.cmd?_PATH=Ad202_4000%281%29.shtm
- 삼성선물 장내파생상품 설명서(준법감시인 검토필 25-066호) —
https://www.ssfutures.com/ssf/customer/terms/danger/HDK_020702.htm
- 삼성선물 국내 증거금 안내 —
https://www.ssfutures.com/ssf/product/money/PRD_04101.cmd

심층 분석 보고서: 삼성선물-IT

6. 삼성선물 자소설닷컴 26상 채용공고 — <https://jasoseol.com/recruit/103999>
7. 삼성선물 자소설닷컴 기업정보(평균 연봉) — <https://jasoseol.com/companies/2842>
8. 삼성선물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EC%82%BC%EC%84%B1%EC%84%A0%EB%AC%BC>
9. 삼성선물 나무위키 — <https://namu.wiki/w/%EC%82%BC%EC%84%B1%EC%84%A0%EB%AC%BC>
10. 삼성선물 사람인 기업정보 — [https://www.saramin.co.kr/zf_user/company-info/view/csn/MllxOUxsRUNSR3p5dGRDbnp1anAyUT09/company_nm/%EC%82%BC%EC%84%B1%EC%84%A0%EB%AC%BC\(%EC%A3%BC\)](https://www.saramin.co.kr/zf_user/company-info/view/csn/MllxOUxsRUNSR3p5dGRDbnp1anAyUT09/company_nm/%EC%82%BC%EC%84%B1%EC%84%A0%EB%AC%BC(%EC%A3%BC))
11. 삼성선물 캐치 기업정보(재무평가 상위 2%) — <https://www.catch.co.kr/Comp/CompSummary/607240>
12. 삼성선물 인크루트 기업정보 — <https://www.incruit.com/company/1682463475/>
13. 삼성선물 블라인드 기업정보(연봉·후기) — <https://www.teamblind.com/kr/company/%EC%82%BC%EC%84%B1%EC%84%A0%EB%AC%BC/>
14. 김인 신임 대표이사 선임 보도(아시아에이, 2025.12) — <https://www.asia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096>
15. 김인 신임 대표 선임 보도(이비엔) —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0095>
16. 김인 신임 대표 선임 보도(더퍼블릭) — <https://www.thepublic.kr/news/articleView.html?idxno=286546>
17. 김인 신임 대표 선임 보도(베타뉴스) — <https://www.betanews.net/article/view/beta202512080061>
18. 선물회사 나무위키(국내 선물전업사 3강 구도) — <https://namu.wiki/w/%EC%84%A0%EB%AC%BC%ED%9A%8C%EC%82%AC>
19. NH선물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futures.co.kr/>
20. 유진투자선물 SMART 챔피언 Futures(App Store) — <https://apps.apple.com/us/app/%EC%9C%A0%EC%A7%84%ED%88%AC%EC%9E%90%EC%84%A0%EB%AC%BC-smart-%EC%B1%94%ED%94%BC%EC%96%B8-futures/id1306570650>
21. KRX 정보데이터시스템(파생상품 통계) — <https://data.krx.co.kr/contents/MDC/MDI/mdlLoader/index.cmd?menuId=MDC0201>

심층 분석 보고서: 삼성선물-IT

- 060301
22. 코스피200 선물 거래 추이(e-나라지표) —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IPageDetail.do?idx_cd=2439
23. KRX 자체 야간거래 안내(NEXT증권) — <https://www.next-securities.com/content/Getcontent.do?content=4000144>
24. 유안타증권 KRX 파생상품 야간거래 시행(2025.6.9) —
https://www.myasset.com/myasset/customer/notice/CU_0201000_P2.cmd?SEQ=202506051308460000000004
25. 코스피200 야간선물 위키백과 —
https://ko.wikipedia.org/wiki/%EC%BD%94%EC%8A%A4%ED%94%BC_200_%EC%A3%BC%EA%B0%80%EC%A7%80%EC%88%98_%EC%84%A0%EB%AC%BC
26. 코스콤 연혁(차세대 시스템·EXTURE) —
<https://www.koscom.c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008>
27. 코스콤 차세대 금융프레임워크(전자신문) — <https://www.etnews.com/20231130000101>
28. 코스콤 클라우드 네이티브 5세대 원장(머니투데이) —
<https://www.mt.co.kr/stock/2023/12/27/2023122714091944607>
29. 삼성SDS 인프라 서비스 소개 —
https://www.samsungsds.com/global/ko/services/inf/services_infr.html
30. 금융보안원 망분리 예외 적용 보안 해설서(2025) —
<https://www.fsec.or.kr/bbs/detail?menuNo=69&bbsNo=11688>
31. 법무법인 광장 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2024.9) —
<https://www.lawtimes.co.kr/LawFirm-NewsLetter/201235>
32. CME Group 삼성선물 브로커 등재 — <https://www.cmegroup.com/tools-information/find-a-broker/samsung-futures.html>
33. 금융투자협회 정보기술부문 프로그램 통제 가이드라인 —
<https://law.kofia.or.kr/service/law/lawFullScreenContent.do?seq=359&historySeq=1591>
34. DART 전자공시시스템(삼성선물 사업보고서 검색) — <https://dart.fss.or.kr/>
35. 삼성선물 FuturesNet 모바일 앱(Google Play) —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ssutures.futuresnet3&hl=en_US